화협 동정

• 방재시험연구소 내화재료 성능 시험기관 지정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지난 해 12월 23일 노동부로부터 '위험물 저장·취급 설비 내화 성능 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내화재료 성능 시험기관' 지정은 그동안 노동부에서 시험기관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의 제반 시험 시설 등 여건을 상세히 검토,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를 시험기관으로 지정케 된 것으로 방재시험연구소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시험 능력에 대한 인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의의가 깊다.

• 자동차 10부제 운행 실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동차 10부제 운행에 협회도 동참, 지난 2월 10일부터 전 임직원 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 끝자리숫자와 날짜가 같은 날은 운행을 중지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 직원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가차량 격일제 운행 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 10부제 운행으로 주차장은 한층 더 여유가 있어졌다.

• '92회계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의 건 의결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사원총회를 열고 '92회계연도 업무계획과 회계별 예산(안) 및 방재시험소를 방재시험연구소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 방재시험연구소 내화피복제 관련 업계 초청 간담회 개최

건축물의 내화 구조 중 화재 안전에 중요한 구조 부재인 철골 내화 피복재의 내화 성능 확보를 위한 문제점 개선 및 지정시험의 활성화를 위한 업계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가 지난 1월 21일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열렸다.

(주)금강 외 5개 내화 구조 지정 업체의 실무 책임자 11명이 참석한 동 간담회에서는 제품별, 내화 성능별 적정 피복 두께에 대한 의견 교환과 내화 구조 지정 품목의 사후 관리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정해봉 이사 연임

92년 1월 16일 협회 사원총회에서 1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해봉 이사의 연임이 의결됐다. 이로써 정해봉 이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재임케 되었다. 정해봉 이사는 그동안 경리·업무·보험·홍보 업무를 관장해 왔다.

• 방재기술 자료집 발간

협회 위험관리부는 지난 1월 '방재기술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발간된 '방재기술연구' 와 '방화정보'의 내용 중 실무에 응용되는 부분을 발췌, 집약한 것으로서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의 정보회원과 특건 S급 물건 소유주, 원수사 위험관리부서 등에 배포되어 안전점검 및 방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됐다.

보험계 동정

• 고려사 창립 44주년 기념식

고려화재해상보험(주) (사장 김석린)는 지난 3월 14일 창립 44주년을 맞아 임직원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동 대연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회사 창립과 그룹 창업 52주년을 경축했다.

• 국제사 창립 45주년 기념식

국제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이경서)는 지난 2월 1일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갖고 20년, 10년 근속직원을 표창.

• 안국사 창립 40주년 기념식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지난 1월 25일 회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장기 근속사원을 표창.

• 자보사 창립 30주년 기념식

한국자동차보험(주)(사장 손건래)는 지난 3월 2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 근속직원 및 우수직원을 표창

• 안국사 러시아연방서 보험 인수

안국화재해상보험(주)는 국내 손해보험사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연방의 국영 보험회사인 잉고스트라흐사와 공동으로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인수했다.

이번에 인수한 건설공사보험은 빌딩 건축 공사중에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4백50만달러로 알려졌다.

• 럭키사 창립 33주년 기념식

럭키화재해상보험(주)(사장 이휘영)는 지난 1월 4일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 및 우수직원을 표창

• 자동차기술연구소 발족

보험사업자에 의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국내 손보사들이 추진해 왔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 3월 11일 보험개발원의 부설 기관으로 발족됐다.

본 기술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날로 증대되는 자동차보험 차량손해의 수요에 대응해서 과학적인 크레임 코스트의 산출과 차량·대물배상의 손해 사정 전문화를 기하는 것으로서 보험 산업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민원 해소 종합 개선대책

보험감독원이 마련한 보험민원 해소 종합 개선대책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보험금, 배당금 등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각종지급금을 은행의 온라인을 통해 지급받고, 생명보험 증권은 우편으로, 손해보험의 2백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현장에서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금, 대출금, 해약환급금 등 각종지급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도장, 보험증권 등을 지참하고 직접 보험회사로 찾아갔던 불편을 덜게 됐다.

• 소방국 인사

내무부는 지난 1월 17일 소방국 소방과장에 권혁신 이북5도 사무국장을 전보 발령했다.

• 소방공제회 이사장 취임

대한소방공제회는 지난 1월 1일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제3대 이사장으로 조성면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장을 선출했다.

조성면(60)이사장 은 91년 12월 31일자로 명예 정년퇴임하였으며, 내무부 방호과장, 대구직할시 소방본부장, 내무부 예방과장을 역임했다.

• 소방기구조합 이사장 취임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1일 제23차 정기총회 및 경쟁력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만장일치의 추대로 동방전자(주)의 최만형사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서울소방에 오토바이 배치

서울시 소방본부(본부장 한금종)는 92회계연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1억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124cc형 오토바이 112대를 구입, 각 소방서 직할파출소에 2대씩, 일반파출소에 1대씩, 각 소방서 방호과의 수리담당용으로 1대씩 배치한다.

소방서에서는 이들을 활용하여 고지대 화재시 선착대로 현지 출동, 화재 취약 지역의 순찰 및 이면도로의 무단 주차 단속을 통한 소방통로의 확보, 비상 소방장치 및 소방용수의 점검 등에 활용하게 된다.

• 주택 화재 높아

1991년도에는 총 16,48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781명의 인명피해와 442억7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도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 2,238건(15.7%), 인명패해 233명(15.3%), 재산피해 100억8천5백만원(29.5%)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6,160건으로 전체 화재의 37%를 차지하였고, 담배 11%(1,745건), 방화 8%(1,312건), 불장난 7%(1,1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담배로 인한 화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전년도와 다를 바 없으나 전년도 전체 화재의 9.2%를 차지하던 방화로 인한 화재가 8%로 줄어 들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의 화재가 계속 1위를 차지, 주택화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아파트에서의 화재 4,690건을 보면 전기(1,848건, 39.4%), 방화(364건, 7.8%), 불장난(377건, 8%), 가스(336건, 7.2%), 유류(319건, 6.8%) 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공장 2,905건(18%), 차량 2,644건(16%)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공장은 12%, 차량은 24%의 증가율을 보였다.